



# 광림 뉴스레터

## KWANGLIM NEWSLETTER



## 광림 외국인 설잔치, 하나님 사랑 나누는 축제의 한마당

2월 11일 사회봉사관에서 다채로운 행사 펼쳐

광림교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을 초청해 국내선교위원회(위원장 서명관 장로) 소속 외국인제자훈련센터 주관으로 2월 11일(주일) 외국인 설잔치를 열었다.

에티오피아, 불어권(주로 콩고), 중국, 러시아 선교회 외국인 성도 120여 명은 분당에서 함께 3부 예배를 드린 후, 사회봉사관 컨벤션홀에 모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우리 민족 고유한 명절 설날은 흠어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날입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제할 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20여 명의 외국인 어린이들은 김정석 담임목사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며 세배를 드렸고, 담임목사는 어린이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세뱃돈을 나누며 설날의 감사와 즐거움을 더했다.

설잔치에 참석한 외국인들은 여선교회의 후원으로 준비한 명절 음식을 즐기고 교제하며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달랬다. 식사 후에는 특별 공연과 전통놀이가 이어졌다. 중국어 예배부의 아름다운 찬양과 남성성가단의 힘찬 찬양, 그리고 센터 봉사자들의 신나는 특송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함께 했다.



웃놀이를 즐기면서 옷이 던져질 때마다 함성과 응원이 쏟아졌고 승패와 상관없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성도가 한데 어우

러져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남·녀·실업인선교회를 비롯해 각 부서와 개인이 후원한 풍성한 경품을 외국인 성도들에게 전달했다. 매 주일 50~70명의 성도가 예배드리는 에티오피아 선교회는 설 명절 3일 동안 나사렛성전에 모여 부흥집회를 열고 기도와 성경공부를 하며 은혜를 나누었다.

콩고 선교회 피터 집사는 "광림교회에서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적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한국에 온 17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2004년에 문을 연 외국인제자훈련센터는 현재 15명의 센터 봉사자들이 외국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자 문제나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주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센

터에는 경기도 외곽에 거주하는 외국인 성도들이 많아 주일에 교회 버스를 이용하지만, 예배가 끝난 후 모임과 교제 등으로 버스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한 차량 봉사 손길이 필요하다. 또한 에티오피아와 불어권 선교회에서는 함께 봉사할 성도들을 모집하고 있다. 외국어 능력과 상관없이 다양한 국가의 성도와 만나고 싶거나 어린이 돌봄 등에 열린 마음이 있는 성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서명관 장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행사를 준비한 봉사자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리고, 참여와 후원으로 도와주신 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은혜롭고 쾌적한 예배를 위해 예배의 공간이 확대되길 기도하며 각국 선교회가 복음으로 부흥되길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문의: 센터장 배성호 권사(010-2336-2399)

소현수 기자

#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눅 8:50)

회당장 아이로는 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로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바람에 지체되었습니다. 이때, 아이로의 하인이 다가와 아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이로는 현실을 인정할 수 없는 좌절감에 빠져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이로의 하인이 전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슬퍼하는 아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50절)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 속에서 두려워하며, 쉽게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 첫째,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내려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신념이 아닌 신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고 그 믿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 때문입니다. 기적은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기적적인 사건이 오늘 내 삶에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생기는 확신으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로는 예수님의 역사가 자신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이로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아이로의 집으로 향하시고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세포가 항상 움직이며 새로운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듯이, 믿음의 신앙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로 믿음이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41~56**  
41. 이에 회당장인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 구하니 42.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43. 이에 열두 해를 혈루 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4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는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마나이다 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는 자가 있다 이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아라 하신대 47.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 대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49.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50.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51.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52.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 53.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54.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라 56.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로의 집으로 향하실 때, 병고침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 밀려가실 정도였습니다. 그때 아이로는 군중들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은 희망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그 걸음은 절망의 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혈루병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로는 “혈루병자로 인해 시간만 지체되지 않았더라면...”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로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실 때에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로가 기적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원하셨습니다. 기적에 의존하는 사람은 자신이 바라던 기대와 다른 결과가 생길 때 쉽게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아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지만, 누구를 원망하거나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자신의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아이로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딸에게 생명의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감당치 못할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 셋째, 절망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절망할 때 믿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들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이로는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딸을 구원해 주실 것이란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미 집 주변에는 예수님의 기적에 관심을 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딸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주변의 모든 부정적인 비웃음을 다 잠재우시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54절) 그러자 아이로의 집에 놀라운 기적이 임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고, 아이로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자신의 결정을 바꿉니다. 확신을 가져도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에 맞게 다른 입장을 표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에서 자유로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로처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을 간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마가와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

갈보리 기도회 2월 14일(수)~3월 30일(토)까지 진행중



지난 2월 14일 성회 수요일(재의 수요일)로 시작된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주일을 빼 40일간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사건이었다.

'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인간의 모습'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종려나무 잎을 태워 재를 만들고, 그 재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며 죄에 대한 회개를 표시한다. '재'는 우리의 부속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죄와 죽

음으로부터 승리한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후 주일을 빼 40일간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절제하는 기간을 갖는다.

초대교회로부터 사순절 기간 중 금식과 절제 등은 매우 중요한 관습이었다. 그러나 중세 시대를 거치며 형식화되었고 지나친 의식과 절차가 생겨났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관습화된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한 회개가 강조되고 있다. 물론 현재도 금식과 절제, 구제와 선행 등은 사순절 기간 동안 꼭 필요한 거룩한 습관이다. 신앙의 실천적인 부분들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식을 하는 것, 교회에서 진행 중인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 등 영적인 목표를 정해보는 것도 좋다.

2024년 갈보리 기도회는 '마가와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작년 마태 복음에 이어 올해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며, 목회연구원에서 발간된 사순절 묵상집은 매일 짧은 묵상 글과 함께 사순절의 유래, 사순절 달력, 매주 유명 화가들의 성화, 사색 설교 내용이나 개인 묵상 글을 적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본당에는 벨렐성전과 나사렛성전, 각 지성전은 사색기도회 장소에 비치되어 있다.

광림교회는 지난 14일 성회수요일을 시작으로 여섯 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부활절 전날인 3월 30일(토)까지 사순절로 지키며 사순절 갈보리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회개와 금식과 절제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다. 3월 29일 성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는 역사를 기억하며 본당 대예배실에서 <성금요일성찬예배>를 드린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나누는 성찬식을 거행한다.

부활주일인 3월 31일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기념하며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본당 대예배실에서 <부활절 기념예배>를 드린다.

변영혜 기자

## 포토 뉴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3월 30일(토)까지 새벽 5시 벨렐성전, 6시 나사렛성전에서 열리고 있다.



**남선교회 리더십 세미나**  
3월 3일(주일), 오후 12시 30분에 사회봉사관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온타임 가정예배문**  
매주 홈페이지 교회안내(양육)에 게재되고 있다.



**광림교회 70년, 그 불꽃같은 이야기**  
역사서를 빛의순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 담임목사 동정



- 2/17 의료선교회 임명예배
- 2/24 남선교회 운영위원회
- 2/25 기독교대한감리회 강남지방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http://www.klmc.church)

이정순 기자

# 2024년 의료선교회 신년 임명예배 및 시무식



지난 2월 17일(토) 광림 의료선교회는 본당 베데스다홀에서 정하원 장로(의료선교회 위원장)의 사회로 2024년 의료선교회 신년 임명예배 및 시무식을 개최했다.

1부 예배에서 김분한 장로의 기도 이어 김정석 담임목사는 '거룩한 치유'(눅 7:11-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불쌍하고 궁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올해에도 아픔과 슬픔,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의료선교회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의료선교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의사와 간호사, 약사, 자원봉사자 부분의 대표로 신명국 권사, 우숙희 권사, 최동철 성도에게 2024년 의료선교회위원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2부 토의 및 회의 시간에는 2023년 회계 내역과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2024년 봉사 계획을 토의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섬김과 돌봄으로 헌신한 문찬수 장로, 최동호 장로, 우숙희 권사에게 공로상을 시상했다. 2023년에는 광림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의료선교회 건강 강좌를 위원회 별로 초청하여 10차에 걸쳐 개최했으며, 광림뉴스레터에 게재된 강좌 내용을 기념패로 만들어 강사들에게 전달했다. 또, 전교인 체육대회, 성령한

국 청년대회, 교육국 성경학교에서 의료봉사를 했다. 해외 활동은 베트남에서 열린 '인도차이나 선교사 대회'에서 의료선교를 했으며, 캄보디아, 튀르키예, 베트남, 몽골, 뉴질랜드, 아프리카 등에 의약품을 후원했다.

2024년에는 주일 봉사 시간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응급실 개념으로 확장시켜 많은 성도들이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강좌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좋아 더 많은 강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하원 장로는 "2024년 의료선교회 회원들이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라는 선교 비전으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선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새로운 회원들을 발굴하고 의료선교 자원봉사팀을 조직화하겠습니다. 특히 국내선교 위원회와 협력하여 목회자와 교직원, 외국인 이주 근로자들을 섬기겠습니다. 해외선교는 담임목사님의 선교 방향에 따라 튀르키예, 몽골과 멕시코 등에서 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 의약품 지원도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정순 기자

광림교회 장로의 소임을 마치며

# 해외선교 비전과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광림교회 장로의 직분으로 쓰임 받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저는 1983년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광림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출석한 후, 남선교회 국외선교위원회 봉사를 시작으로 해외 선교에 20년 동안 헌신과 봉사를 하며 2004년에 장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고 김선도 감독님과 김정석 담임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따라 20년 동안 장로로 시무하면서 국외선교위원장 15년, 장로회장으로 6년을 헌신하고 은퇴하게 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시간이었습니다.

2004년 장로로 취임하여 섬김과 순종으로 선교 지향적 해외 선교 비전을 감당하였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하여 중국 13개 교회 개척, 베트남, 뉴질랜드, 필리핀, 몽골, 에스토니아 등 해외 선교와 블라디보스토크 교회 봉헌으로 부족한 제가 장로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장로회장으로 은퇴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코로나 팬데믹 동안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장로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팬데믹을 잘 극복하고 회복하는데 기도와 헌신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김정석 담임목사님께서 2020년 서울

남연회 감독 취임으로 2년간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며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비전을 이뤄가시도록 기도로 함께 동역하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장로의 직분을 은퇴하며 후배 장로님들을 위해 권면과 기도를 드립니다.

고 김선도 감독님께서 '사실(Fact)보다 태도(Attitude)가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마음 깊이 새기며,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목회자와 성도들을 잘 섬김으로 관계성을 잘 맺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다고 하셨으니,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으로 장로의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장세근 장로

# 주님 안에서 예스(YES)의 고백으로 헌신을 약속

2014년 장로로 임직된 후 충성된 종으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던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로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격을 갖춰가라"는 고 김선도 감독님의 말씀에 감동받아 순종하게 됐고, 능력의 지팡이를 저를 통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4대째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저는 1983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예수님 안에서는 '예스'만 하겠다고 고백했죠.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찬양 사역자로 저를 사용하셨고, 1990년 트리니티 찬양단을

시작해 올해로 34주년이 되었습니다. 기뻐서 찬양하는 저를 언제나 응원해줬던 남편과 아이들 덕분에 감사하게도 많은 땅을 누비며 찬양의 목소리를 키워왔습니다. 두 아들이 고3 때 머나먼 타지로 찬양 사역을 갔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라도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너희가 각자 자리에서 맡은 일을 잘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하는 거고, 그 일을 돕는 거야"라고 말했을 때 아이들은 기꺼이 엄마가 찬양을 하러 갔으면 좋겠다고 믿음의 확신을 주었죠.

김정석 담임목사님 취임 15주년에 "여러 사람이 모인 팀을 하나의 색깔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동안 트리니티

찬양단을 이끌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에 보답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끝났을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이 이끄셨기에 트리니티 찬양단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제 삶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유념하고, 매 순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귀한 직분으로 사용해 주심에 항상 감사했는데, 은퇴를 앞두고 감사함이 더 깊고 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찬양 사역을 허락해 주시고, 오류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한한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장로 은퇴를 앞두고 얼마 전 미가엘성가대에 입단해 또 다른 모습으로 찬양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트리니티찬양단을 비롯해 불러 주시는 어떤 곳에서

든 찬양 사역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부르시는 것도, 이끄시는 것도, 채워주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시기에 그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기대하며 걸어갑니다.



박미경 장로

#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시간에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성장했으나 믿음 생활을 인도하여 주신 것. 어려운 지방 근무 중에도 재정부 봉사를 통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어 주일성수할 수 있게 하신 것. 광림 영어예배를 통해 성경을 영어로 이미지네이션 하게 된 것. 새가족 교육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경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실 두려움과 걱정으로 시작한 장로 직임을 부족한 모습대로 사용하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장로 직분을 통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거룩한 선한 습관과 의무감을 갖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로의 소임을 마치며 돌이켜 보니 저의 삶 전체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장로 직분은 저에게 감사하고 영예로운 일이었습니다.

믿음은 있으나 뜨겁지 못했고 헌신의 뜻은 있으나 소극적인 성격으로 담대히 교회의 일을 하지 못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연단과 도전의 기회였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실 것이라는 담대함으로 장로직을 받았습니다.

다른 장로님들 보다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았고 교회에 큰 헌신을 하진 못했지만 늘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작은 모습으로도 증거하려 하였습니다. 저에게 장로의 직분은 제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시간이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저를 향한 사랑과 의지의 표현이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언제나 함께 하며 힘이 되어준 아내 하권사와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상 시무장로에서 은퇴하려 하니 어렵고 섭섭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이끌

어 주신 에벤에셀의 주님께서 저에게 합당한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신성수 장로

# 청년부 2024년 겨울수련회 '한걸음'



광림교회 청년부는 2월 16일(금)~18일(주일)까지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한걸음'이라는 주제로 겨울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00명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을 향해 '한걸음' 걸어가는 원리에 대해 배우는 시간, 어둠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한걸음'을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 집회에서는 'IN+US'(은누리교회 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이성재 목사(은양한울교회)의 '물을 붓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은 청년들은 '빈 항아리에 말씀과 기도라는 물을 붓는 것이 비전을 향한 한걸음이라

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는 김주송 목사가 진행하는 온타임 '말씀 일기로 하루를 시작하여 손문준 교수(우리모두친구 대표,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비전 특강, 'Kahoot(카훗)을 이용한 광림장학퀴즈 등의 오전 프로그램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청년부 내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멘토와 멘티들이 만나 식사와 교제를 하였으며, 오후 시간에는 이현주 교수(연세대학교 연구교수)의 특강과 천국 노래자랑대회, 우당탕탕 체육대회 등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건강한 교제와 화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는 'IN+US'의 인도로 뜨거운 찬양을 드렸으며, '밥을 먹이다'라는 주제로 이성재 목사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김주송 목사의 인도로 기도합주회가 이어졌습니다. 5시간의 집회 동안 말씀과 기도의 자

리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였고, 은혜가 충만해진 청년들은 함께 찬양하고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한 김무성 팀장(국내선교팀)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한걸음에는 생명력이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라는 빈 항아리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광림 청년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모든 헌신의 손길들에 감사함을 전합니다"라고 고백하였으며, 청년 2교구 속장으로 참여한 차준희 자매는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둠이라 말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과 비전을 품게 된 수련회였습니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 영적으로 무장된 2024년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지난 2월 2일~4일, 2박 3일간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는 2024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은혜의 축제에 중고등부 학생과 교사를 포함해 총 209명이 참석해 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엡 6:13)라는 주제로, 명확한 세 가지 영적 목표를 갖

고 계획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영적 세계가 실제로 존재함을 깨닫는 것', 두 번째 목표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싸움을 목도하는 것', 세 번째 목표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입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각각의 의미와 그것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중고등부 각 부서는 수련회 계획 단

계부터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과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일정과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영적 무관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영적 세계의 존재에 대해, 영적 전쟁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 강사로서 다소 부담스러운 일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과 기도를 통해 말씀을 준비하였고 선포하였습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수련회 전 일주일 동안에 특별히 저녁 집회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전심으로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외적인 모습 이외에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그 공간에 임재해 계시고, 기도하는 이들을 덮으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단 앞으로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며 나아가 회개의 기도까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들을 부르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시간도 허

락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을 주제로 한 이번 수련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은혜와 영적 승리를 누린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회 이후에 학생들이 자발적인 기도 모임을 만들었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카톡방을 개설했으며,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챌린지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두운 시대, 그 안에서 작지만 큰 소망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작은 응답을 드렸던 이번 수련회를 발판 삼아 앞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세상을 이기는 세대가 되도록 모든 성도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세대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소망과 꿈을 다시금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임재철 목사(교회학교)

## 사회사업위원회

# 설날 맞아 어르신들 위한 돌봄 행사 가져



사회사업위원회(위원장 장재관 장로)는 설날을 앞둔 2월 7일 오전 5시 30분부터 광림교회 웨슬러관 입구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돌봄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앞서 봉사자들을 격려한 윤사무엘 목

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광림교회 사회사업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작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이른 새벽 수고를 하는 봉사자들과 또 후원자에게 큰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한다"고 축복 기도를 했다. 지하철 도착시간에 맞춰 5시 40분부터 두터운 외투를 걸친 어르신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금세 많은 인원이 도로에 길게 줄을 이어갔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왔는데 이들에게는 빵과 한방파스, 유과, 사탕, 두유 및 선물이

지급되었다. 선물 중에 두유 및 사탕은 김명진 권사가, 나머지 비용은 안병철 권사가 후원하였다. 안 권사는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베푸는 삶을 살 때 더 큰 만족과 축복이 찾아오는 것을 느낀다. 앞으로도 나눔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 연말 행사는 강인호 권사가 후원하였다. 강 권사는 "사업을 하다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큰 위로와 힘이 될 때가 많다. 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며 감사드린다"고

했다. 금년부터 사회사업위원회를 맡게 된 장재관 장로는 "어르신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사랑 나눔 행사가 많이 축소되고 있지만 광림교회는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사랑 나눔 행사를 중단 없이 계속해 오고 있다. 묵묵히 후원해 주는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곳을 보살피며, 앞장서서 찾아가는 사회사업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득섭 기자

목회현장

#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내는 공동체에 복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 좋습니다. 당신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헨리 나우웬)

살롬! 광림 사랑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33주년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의 제한이 공식적으로 해제가 되면서 사랑부의 모든 행사는 정상화되었습니다. 면역의 취약함과 건강의 문제로 인해 대면 예배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도 한 명씩 한 명씩 발걸음을 교회로 옮겼고, 선생님들의 기도와 심방과 관심으로 많은 학생들이 돌아와 예배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부는 발달장애인 학생들과 교사들이 하나 되어 서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학생들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 교사와 학생들 서로가 서로에게 연약한 모습을 품어내며 공홀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부 학생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참 소중합니다. 예배 시작 1시간

전부터 와서 예배실을 다시 점검하고, 찬양 부르며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부 학생들의 찬양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대단합니다. 함께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자고 이야기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앞으로 달려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느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말씀 시간에는 질문에 쉬지 않고 대답하려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과 열정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나는 천국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이번 한 해 사랑부는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 성도님들의 사랑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랑부는

학생들과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 주실 선생님들과 중보기도의 후원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네 친구의 믿음 가운데, 또 믿음으로 종의 병을 고쳤던 백부장의 모습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부에도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활동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한 생명의 존엄함과 고귀한 가치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걸음에 현장의 손길과 또 중보자의 기도로 함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진선규 목사(사랑부)

광림남교회

##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광림남교회 중고등부는 지난 2월 2일(금)부터 4일(주일)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광림수도원과 광림남교회에서 겨울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의 개회 예배의 말씀과 함께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에베소는 걸으려는 크고 화려한 도시였지만 그 안에 세상의 유혹들이 많은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겪는 상황을 떠올리며 영적 전쟁 속에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조별로 풍선으로 전신갑주를 만들었고, 다음날 코스 활동과 연결하여 게임을 통해 전신갑주를 다시 얻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전신갑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집회는 전용제 목사님(하늘세교회)께서 'HARD CARR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기고 성처럼 우리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좌절하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는 것,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 집회 후 진행되는 기도회에서는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도록 초청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진회와 폐회예배 시간, 주일예배 시간에는 전신갑주의 각 구성요소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알아보았고, 두 번의 성경공부 시간에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그동안 수련회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없었는데, 기도회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내용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간구만 하던 기도에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고백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부서의 아이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현진 전도사(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 겨울성경학교 이야기



광림북교회에서는 지난 1월 말과 2월 초에 각 부서별 겨울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며 부서의 눈높이에 맞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영·유아·유치부에서는 '좋은 친구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물론 힘들고 지쳐 외로울 때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인형나라 인형극단 팀을 초대하여 인형극을 나누었습니다. 기쁨, 환희, 공휴, 불쌍히 여김 등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부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 안에서 살인지, 어떤 삶이 믿음이 있는 삶인지에 대해 나누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양주에 있는 눈썰매장으로 이동하여 신나는 야외활동을 병행하였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려 탈 수 있는 특별한 코스도 준비되어 있어서,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눈썰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코로나와 독감에 대한 걱정으로 학생들을 보내기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올해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근한 날씨와 따스한 사랑으로 걱정 없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부에서는 '오직 진리(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의 표어에 발맞추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시간으로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말하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여, 이번에는 다양한 기도회로 구성되어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예배 기도회를 시작으로 2024년 나를 위한 기도회, 기도 십부장 기도회, 중보기도회와 3개월에 한 번 진행되는 분기 기도회까지. 겨울수련회의 여정 동안 총 5시간의 기도회를 진행하며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겨울수련회에 식사 봉사를 해주신 여선교회와 보조교사로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여 주신 모든 집사님,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고 완전하게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민재 전도사(광림북교회)

#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

## 2024년 해외 선교지별 선교 비전



### 러시아 모스크바 광림교회

모스크바 광림교회는 러시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룩한 제단으로 칼리닌그라드 광림교회, 성누가 광림교회, 베다니 광림교회, 사트카 광림교회를 개척했으며,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광림미션센터 봉헌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광림교회는 한국인 예배, 고려인 예배를 비롯한 여러 선교단체의 모임이 있으며 러시아 선교와 교회 연합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현지에 있는 교민들을 위로하며 평화를 되찾을 날을 위해 기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몽골 어잉게렐 광림미션센터, 어르비트 광림미션센터

몽골은 한국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잉게렐과 어르비트 광림미션센터는 방과후 교실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으며, NGO 자원봉사 사역을 통해 섬김과 봉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광림북교회의 후원으로 교회 이웃

에게 생필품과 쌀을 나눠주었으며, 빈민선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리교 몽골 선교 30주년을 맞은 2024년, 울란바토르 외곽 지역 신도시 날라흐에 교회 부지를 마련했으며, 몽골 전통에 맞는 게르교회를 시작으로 몽골에 세 번째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P국 광림스쿨

코로나로 인해 학생 수가 많이 줄었지만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본당의 후원과 자매 선교구인 8선교구의 후원으로 전교생 장학금 후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건물 보수 및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교육 공간 및 특수교실을 확충하고 기술교육을 통해 직업과 연결시켜주는 전문학교 설립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일본 아미가타 광림교회

일본 북방선교의 전초기지로 세워진 아미가타 광림교회는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코로나 이후 매주 주일 예배 후 식탁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찾아가 심방하고, 일본어 동시통역을 통해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광림미션센터

코로나로 인해 교민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베트남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한국에서 기증한 책을 모아 지하에 도서관을 개관하여 지역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오지를 찾아가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마을을 돕는 일, 청년들을 초청하여 교회학교 교사로 훈련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현지 미자립 감리교회 20교회를 돕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인도차이나반도의 선교 허브로 선교기관을 연결하고 현지인 리더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잠비아 광림신학교는 현재 30명의 학생이 등록하여 수업중입니다. 2024년에는 이들을 위한 기숙사와 식당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잠비아뿐만 아니라 주변에 인접한 국가에 목회자를 파송하여 아프리카에 만연한 이단과 사마니즘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건강한 신앙과 복음을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작한 루사카 광림스쿨 또한 정식 절차에 따라 설립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조혼이나 에이즈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질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미래를 선물하는 미션센터의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 튀르키예 안디옥개신교회

2023년 2월 6일 대지진 이후, 선교뿐만 아니라 구호사업, 교육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안디옥개신교회는 튀르키예 정부 문화재청과 협력하여 교회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건 속도에 맞춰 교회 재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도와 재건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교회의 후원을 통해 안디옥 외곽에 한국 마을 조성을 계획 중이며 정부로부터 대지를 제공받았습니다.

안디옥 외곽 지역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모여사는 마을, 임시 거주지 등을 찾아다니며 기독교인 공동체를 파악하고 한국교회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광림교회와 연결된 선교지는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C국 등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청년부의 100교회 건축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인 섬기는 외국인제자훈련센터 안에는 에티오피아, 콩고, 몽골, 러시아 공동체 등이 있으며, 매주 중국어 예배와 영어 예배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3부 예배에는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 동시통역도 진행 중입니다. 해외 교단과 교회, 신학생의 방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와 찾아오는 선교의 선순환이 광림제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귀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루체포레 봉사

빛의 숲 루체포레(Luce Foret)는 단순한 카페의 기능을 뛰어넘어 성도들의 교제와 휴식의 공간으로, 각 부서의 모임과 행사의 장소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광림교회 성도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루체포레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근혜 집사(16교구)와 인터뷰를 나눴다.

### 루체포레에서 봉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결혼 전 10년 넘게 교회학교 유치부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결혼 후 어린 자녀들과 함께 주일성수를 하다 보니 어떤 부서에 속해서 봉사한다는 게 쉽지 않아 몇 년을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늘 봉사에 대해 갈급함이 있던 중 지구장님께서

서 루체포레에서 함께 봉사할 것을 제안해 주셔서 작년 루체포레 재개장 때부터 봉사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 루체포레 봉사를 통해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다면?

대부분의 교회 봉사는 주일에 집중되어 있지만 루체포레 봉사는 주중 하루, 가능한 시간을 교회에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특별합니다. 제 시간과 마음을 선별하여 주중에 교회에 나와 봉사자들과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투병으로 체력이 많이 저하돼 있었는데, 봉사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을 뿐 아니라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매

일 감사함이 넘칩니다. 루체포레는 팀을 이뤄 봉사하는데, 팀장님께서 팀원들을 위해 정말 많은 기도를 해주십니다. 교회가 아니었다면 대체 어디에서 이런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주변에, 루체포레 봉사를 적극 권면했고 몇 분이 저처럼 자녀들이 유치원에 등원한 평일 시간을 활용해 열심히 봉사하고 계세요.

### 올 한 해 루체포레를 통해 이루고 싶은 소망은?

루체포레는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카페 선교에 관심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오셔서 관심 분야의 일을 배

우고, 서로 섬기며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믿지 않는 방문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전하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바람은 올 한 해 루체포레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인만큼 공간이 가진 의미를 잘 활용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다양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문의 : 루체포레 (010-5441-5520)

박희훈 기자





#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45

##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행 7:55~60)

사도들의 담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여러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에 부흥을 거듭하였다. 처음 오순절에 120명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가 3천 명으로 늘어나더니, 5천 명이 더 늘어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증가했다. 이렇게 교인(敎人)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 가면서 문제들도 생겨났는데, 유대인 교인과 다른 나라에서 출생한 이

방(異邦)인 교인 간의 갈등이 일어났다. 특히 헬라(Hellas, 성경에서 그리스를 뜻함)계 교인들의 불만이 심해졌다. 매일 양식을 배급받을 때 헬라계 과부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교회는 과부와 고아 등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다. 워낙 교인들의 수가 많아져 사도들은 그들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열중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사도들은 회의를 소집하고 교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저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서 모두에게 신임 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 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맡은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일곱 사람을 뽑았으니,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콜라가 그들이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을 집사(執事, 각 기관의 일을 맡아 봉사하는 교회 직분의 하나)로 임명했다.

일곱 집사 중에서 스테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났다. 그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 스테반 집사의 전도\_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테반 집사의 모습이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며,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후안 데 후아네스의 작품

면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회당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스테반을 시기하여 그를 반대하며 논쟁을 걸어들었다. 그러나 스테반이 말하자, 그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을 당해 내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몰래 사람들을 매수해 거짓말을 퍼뜨렸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그들은 거짓 주장으로 스테반을 모함하고, 그를 잡아서 산헤드린으로 끌고 갔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재판관들은 예수에 이어 사도들과 이제 그 제자들까지 나서는 것에 분노하면서도 난감했다.

그들에게 매수당한 사람이 나와 증언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욕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며,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전부 내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증언을 들은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말했다. “너 자신을 변호할 말이 있느냐?”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여 산헤드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스테반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는 것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리고 스테반이 담대하게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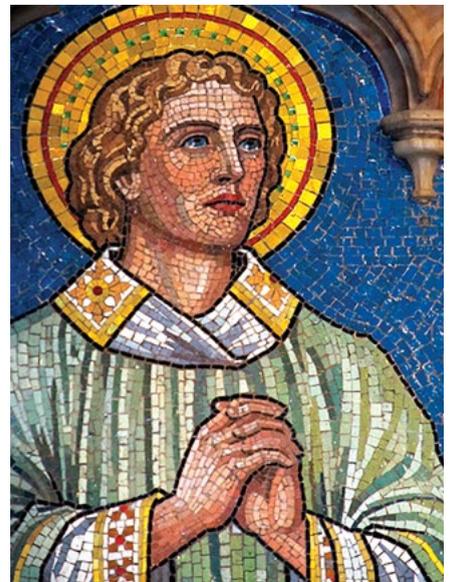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세워 율법을 주시고, 여러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윗과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

도를 보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스테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 갔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를 죽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을 거슬러 의인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배반자이며 살인자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함부로 써 버렸습니다.” 그러자 스테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난폭해지더니 폭도로 변하였다. 그러나 스테반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저놈을 끌어내다가 돌로 쳐죽여라!” 그들은 사정없이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는 맹렬하게 그에게 돌을 던졌다. 이때 주동자들은 겹옷을 벗어 놓고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지키게 하였다. 돌이 비 오듯 쏟아지는 중에 스테반이 기도했다.

“주 예수여, 내 생명을 받아 주십시오.” 그래도 돌은 계속해서 날아왔다. 스테반은 무릎을 꿇고 다시 큰소리로 기도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도였다.

“주 예수여, 내 생명을 받아 주십시오.” 그래도 돌은 계속해서 날아왔다. 스테반은 무릎을 꿇고 다시 큰소리로 기도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도였다.



▲ 스테반 집사\_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집사로 선출된 스테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모자이크화 작품

그리고 스테반은 숨을 거두었다. 스테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첫 번째로 순교(殉敎,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침)하였다. 그런데 스테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문의 : 빛의숲서점 (02-2056-5771)

광림 뉴스레터

